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 지수 125p, 중고선가 지수 89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 중고선가 지수는 89p를 기록함. 지난주 현대미포조선이 40,000CBM급 LPG선 2척을 싱가포르선사로부터 수주함. 척 당 선가는 5,200만달러이고 인도기한은 2022년까지라고 알려짐. (Clarksons)

### Total, Shell, Equinor: Majors size up rig market for Brazil drilling deals

브라질 offshore 시장에서 Total, Equinor, Shell, Petrobras 등 NOC(National Oil Company) 및 IOC(International Oil Company)들의 시추 장비 용선 계약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면초가에 몰린 시추업체들을 구제하고 있다고 보도됨. Valaris, Seadrill 등 시추업체는 현재 Offshore 시장 내 희소한 용선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컨' 시장 V자형 회복 기조 확산

컨테이너선 시장의 V자형 회복에 따른 혜택이 하위급 컨테이너선 시장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보도됨. 아직 선가가 용선료 상승세를 따라 잡지는 못하고 있으나 상당수 선박의 매매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2~3주 안에 파나마스급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가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IMO연비 규제, 조선에 호재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지난주 75차 총회에서 기존 선박에 신조선 수준의 연료 효율 규제를 적용하는 '선박 대기오염 방지 규칙(MARPOL Annex VI)' 개정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이후 발주된 선박에 대한 선박제조연비지수(EEDI)에 적용되지 않던 2014년 이전 발주된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 기존선박연비지수(EEXI)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Shell, LNG선 용선 18척으로

네덜란드의 슈퍼 메이저 Shell사가 용선 LNG선 수를 18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이를 위해 한국 조선소에 LNG선을 발주해 놓은 선주들과도 추가로 용선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2019년 용선 계약을 체결한 14척 외에 4척을 추가로 가까운 시일 안에 계약체결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장기적으로는 용선 선박 척 수를 22척으로 늘릴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유암코 컨소시엄, STX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STX조선해양은 유암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힘. STX조선해양의 매각작업은 2017년 무산된 후 4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도됨. 유암코 컨소시엄은 최대 2,500억원을 투자해 STX조선해양을 인수한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초 중인수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